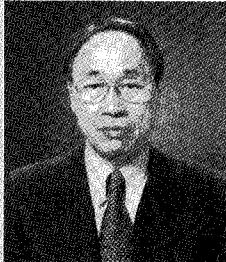




잉여원유 상황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수현
낙농진흥회 진무이사

수급은 시장에서의 당기는 힘 즉,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질 때 균형을 이룬다.

그런데 오늘날 시장에서의 당기는 힘은 자연발생적이기 보다 공급 쪽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만들어지는 경향이 짝 있으므로 수급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양방향적 성격을 갖기 마련이다.

수

급은 시장에서의 당기는 힘 즉,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질 때 균형을 이룬다. 그런데 오늘날 시장에서의 당기는 힘은 자연발생적이기 보다 공급 쪽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만들어지는 경향이 짝 있으므로 수급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양방향적 성격을 갖기 마련이다.

우유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유 및 우유를 가공한 음·식료품과 같은 공익적인 제품은 수요를 자꾸만 들어 공급규모를 늘릴 수 있는 데까지 늘려가는 것이 국내 낙농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다양화를 위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우유 수급은 총 수요중의 자급율이 낮아지고 있으면서도 국내산 원유가 남아도는 기막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낙농진흥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집유일원화 체제내 뿐만 아니라 집유일원화체제 밖의 유업체와 낙농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바야흐로 전국적인 현상인 것이다.

전국의 원유집유량 중에서 7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집유일원화 체제내에서의 잉여원유(총집유량-유업체와의 공급계약량)상황은 금년 들어 지난 9월까지 26만 3천톤(1,255천톤-992천톤)으로 잉여율은 21%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잉여 상황은 좀처럼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연말까지 모두 35만 3천톤(1,668천톤-1,315천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잉여원유에 대하여는 낙농진흥회가 설립된 99년 이후 지금까지 정부지원에 의한 수매중심으로 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여기에 소요된 수급조절자금은 금년 6월 30일까지 3년 6개월간 3,000억원을 웃도는 자금이 투입되었으며, 금년 들어 9월까지의 1,2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년 정부예산 420억원의 3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결국 이와같은 재정수요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9월 이후 15일 단위 세 차례에 걸쳐 잉여 원유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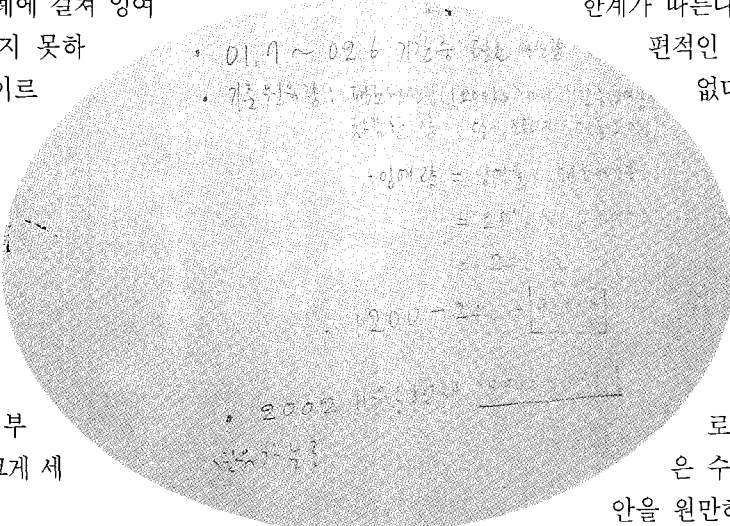
시장으로부터의 당기는 힘도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잉여원유를 해소시키는 수급해결 방안은 세부적·이론적으로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그 하나는 수요를 확대하는 것, 그 둘은 수요에 맞게 생산을 조절하는 것, 그 셋은 잉여분을 수매하는 것이다. 그리고 종합적·실제적으로는 수요를 확충해가면서 생산을 조절하되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잉여량은 수매 처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기본으로 놓고 우선 수요부분부터 살펴 볼 때 자급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수요확대의 여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우리나라 낙농산업을 한 단계 높게 도약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요개발 추진의 방향은 시유보다 치즈 등 유제품 쪽으로 두어야 한다고 볼 때, 요즘 들어 치즈 수입업체에서 국내산 원유

를 활용한 제품 생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생산 조절 부분을 보면 그간의 수입을 바탕으로 한 지출규모가 있고, 낙농가 나름대로의 발전계획이 있을 터이기에 전체 낙농산업의 발전이라는 대승적 입장에 자가 사정을 조율시키지 않고서는 이루어내기 매우 어려운 과제다.

지금 낙농업계가 겪고 있는 갈등이 그러한 어려움의 일단 이겠지만 수요와 동떨어진 생산으로 잉여가 지속될 때 그 비용을 누가 계속해서 부담할 것인가를 자문할 때 한계가 있다고 밖에 자답할 수 없다면 결론은 불가피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잉여분 수매에 있어서 그 재원은, 낙농업계가 수급조절 기

금을 마련할 수 없다고 볼 때 결국 정부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또한 소요예산 확보상의 애로와 WTO 규약상의 제약 등 한계가 따른다는 점에서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같은 현실에서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수급대책방안 즉, 수요를 확충해가면서 생산을 조절하되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잉여량은 수매처리 한다는 방안을 원만하게 실행시키기로 한다면 어떠한 시스템이 적합할 것인가?

유제품 수요확충을 위한 경쟁력 있는 원유는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생산 조절에 따른 낙농가의 소득 감소를 줄이기 위한 정부지원의 불가피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낙농가가 자가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생산조절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인가?

이러한 물음들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실행수단이 바로 우유수급해결 방안이 될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낙농진흥회는 2002년 10월 16일부터 잉여원유 차등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㉞)

(필자연락처 : 02-573-7822)